

#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3**

발의년월일 : 2008. 8. 29

발의 의원 : 홍우길 의원外 6인

## □ 제안이유

- 공신력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정연수원 건립부지를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공표한 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에 동조하여 원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천명하면서,
- 당초 결정한대로 도원지구 건립, 연수원 부지에 대한 재심의 즉각 중지, 혼란을 야기한 책임 통감 및 강원도민에게 유감 표명 등을 건의 하고자 함.

## □ 주 문

- 건 의 문 : 별 첨
- 건의문 발송 :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촉구 건의문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공신력 있는 국가의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사무처가 수개월에 걸쳐 국회 의정연수원 예비후보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강원도 고성군 도원지구로 최종 확정·공표한바 있음에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이의제기를 한다 하여 국회가 이에 동조, 원점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이며, 강원도민에게는 모욕적이며 분노를 부추기는 행위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회는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회 의정연수원을 당초 결정한대로 고성군 도원지구에 반드시 건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국민을 지역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지역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소모적인 유치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연수원부지에 대한 재심의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민심을 거스르고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강원도민에게 유감표명은 물론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는 민의의 산실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     |       |     |       |
|-----|-------|-----|-------|
| 의 장 | 김 성 근 | 부의장 | 김 진 기 |
| 의 원 | 홍 우 길 | 의 원 | 김 명 동 |
| 의 원 | 김 강 수 | 의 원 | 이 금 자 |
| 의 원 | 김 병 욱 |     |       |